

배트를 들고 진군했다는 영국 군인들처럼, 선교사들이 가는 곳에 스포츠가 있었고, 그 곳에 성경이 있었다. 영화 『YMCA 야구단』은 이러한 모습을 보여준다.

억압, 복음의 도구로 이용되었던 체육활동은 현대 사회에 접어들면서 오히려 기독교 문화를 위협하기에 이른다. 현대 사회의 여러 정의 방식이 있겠지만, 체육 분야에서는 여가의 시대라고 규정한다. 이때 여가는 곧 스포츠를 의미하는데, 과거 독서나 음악감상이 좋은 여가였던 것과 달리, 골프 등의 스포츠가 좋은 여가로 자리하고 있다. 즉, 여가의 시대란 곧 스포츠 여가의 시대인 것이다. 문제는 놀 거리가 많아진 반면 놀 시간이 부족한 기독교인들을 포함한 현대인들의 여가가 주말에 집중하고 있는 현상이다. 특히, 스포츠 여가활동은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수많은 주말 골퍼 교인을 양산하게 된다. 일상에서 소비 지향적 스포츠 여가문화로 기독교 문화가 위축되고 있는 예를 쉽게 찾을 수 있다. 극단적인 주장일 수 있지만, 스포츠 여가 문화가 기독교 문화를 잠식해 가고 있는 중이다. 이와 같이 기독교에서 바라보는 신체활동의 의미는 역사적으로 변화해 왔다. 억압, 활용, 잠식의 과정 속에서, 무엇보다 21세기 소비적 여가 문화 속에서, 기독교는 신체활동 여가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고, 기독교 대학은 교양체육수업을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가? 또한, 기독교 체육 연구자들은 둘의 관계를 어떻게 인식하고 실행해야 하는가? 이 학술대회의 면면을 보자면, 이 연구는 종교성을 갖는 체육학 연구일 것 같다. 그런 점에서 현 시점에서 기독교와 스포츠 여가 활동의 관계에 대한 기본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논의를 배경으로 제시하면서 기독교학생들의 교양체육수업에 대한 필요성과 방안을 논의하면 좋을 것 같다.

교육/02/발표논문/

기독교학문 관점에서 바라본 유아동기의 홈스쿨링

김영희 (미드웨스트대학교 교수) 김남영 (광운대학교 교수) 김은지 (홈스쿨센터 연구원)

요약

본고는 이원론이 만연한 현실에서 기독교학문의 기본이 되는 기독교적 세계관의 관점에서 바라본 유아동기의 홈스쿨링에 대해 다루었다. 유아동기 교육은 성인이 행동의 모든 특성을 결정하는 원인이 된다. 따라서 유아동기에 기독교 학문적인 가치관을 확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기독교학문 관점에서 홈스쿨링을 통한 유아동기 교육에 대한 새로운 신앙적 자녀 교육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유아동기에서 홈스쿨링의 중요성이 무엇이며, 홈스쿨링의 결과들과 장점들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특히 기독교인으로서 유아동기 자녀들의 신앙교육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반응들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등에 관하여 다루고자 한다.

핵심단어: 기독교세계관, 홈스쿨링, 유아동기 교육, 기독교 교육

I. 서론

산업사회가 시작된 이후 지금 우리사회의 인간교육의 방향은 오직 경쟁력을 추구하는 방향으로만 질주해 왔고 근년에 우리 사회에 불어 닥친 국제화와 세계화의 열풍은 그와 같은 경쟁력을 더욱 부추기고 있으며, 인간교육을 더욱 더 경쟁적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러한 경쟁력 추구는 우리 사회의 공교육을 임시준비 교육에만 매달리게 되는 한정된 모습으로 전락시켰고, 우리 사회의 미래인 청소년들의 인간성을 더욱 황폐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였다.(정일웅, 2004:93.) 사회는 혼란스럽고, 학교 내에서 벌어지는 집단 성폭행, 대규모 집단 시험 부정행위, 전국 규모로 기업화한 폭력조직, 동료를 괴롭혀 자살하게 만든 학생들, 때려서 죽인 학생들 등 충격적인 일들(마약, 임신, 왕따, 원조교제, 자살 등)이 일어나고 있다. 이 세대에 새로운 교육의 변화가 필요한 것만은 사실이다.(오춘희, 2005:13)

성경은 교육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더 알아가기를 원하지만, 현재의 공교육 현장은 교육과 하나님을 분리시켜 버렸고, 크리스천 학생들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공교육과 기독교교육이라는 이원론적인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어쨌든 우리 사회의 공교육은 많은 불신을 받고 있으며, 현재 방향을 분명하게 하지 못한 상태에 놓여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지나친 경쟁 지향적이며, 임시위주의 공교육 형태로 인하여 수많은 청소년들이 좌절하고 있으며, 공교육에 적응하지 못하고 학교를 중도에 탈락하거나 방황하고 있다.(정일웅, 2004:93,94)

처음부터 우리나라의 국가 기원은 기독교적인 설립 배경이 전혀 아니다. 따라서 한국의 교육은 근본적으로 성경 말씀과 하나님 중심의 교육이 아니다. 기독교적 교육관이 한국 교육에는 원래부터 부재하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토속 신앙이나 민속 신앙을 제외하면 불교와 유교가 혼합되어서 내려오다가 천주교가 들어온 후 나중에서야 기독교가 들어왔기 때문이다. 비록 우리나라에 제일 늦게 들어 왔지만 기독교가 사회와 의료사업 그리고 교육 발전에 큰 영향을 끼쳤다. 병원도 세우고 사회사업기관도 세우고 기독교 학교들도 많이 세워져 기독교의 전파와 같이 서양 학문의 보급의 기회가 되었다.

한국의 많은 학교에서는 유아동기 자녀들의 교과내용은 진화론을 배우고 대학입시에 쫓겨서 시험에 나오지 않는 다른 내용에 대해 배우는 것은 시간을 아까워하며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수업시간이라 생각되면 아예 수업시간에 있드러 잠을 청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다. 학생들이 학교 선생님들을 존경하는 것을 찾아보

기 힘들고 이런 분위기에서 선생님은 열심을 내서 가르칠 마음도 생기지 않게 되며, 학교에서는 폭력과 왕따 등 여러 가지 문제들로 복잡해지고 있다. 심지어 대학 입시 시험인 수능시험에서 부정을 한 사실들이 드러나게 되면서 교육계가 더 술렁이고 있다. 양심을 속이고 감독관을 속이며 무엇을 위해서, 무엇 때문에 시험을 보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된다. 그런 식으로 좋은 점수를 받아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지만 하면 끝이 아니다. 자기 실력도 아니고 혹시 실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인간의 기본 성품이 완전히 망가진 상태에서 공부만 잘하는 사람들이 졸업해서 많이 배출된다면 이 사회는 거짓과 속임수가 만연한 어두운 사회가 될 것이다.

현재 나타나는 학교의 현상이나 사회의 모든 문제들은 공교육에서 인본주의를 중심으로 하는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쳐 왔기 때문에 해마다 2만 명 정도의 학생들이 학교에서 이탈하고 있으며, 1990년대 이후로 ‘학교붕괴’, ‘교실붕괴’로 명명되었던 학교의 파행적 현상은 20여년이 지난 지금도 해결되기는커녕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 매스컴의 보도를 보면 학교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정도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21세기가 시작된 지금도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공교육이다.(오훈희, 2005:13)

유·아동기 자녀들에 대한 가정교육도 대부분이 학교교육에 의존하고 있어 기독교 가정에서까지 지금은 일반 불신 가정이나 다름없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유·아동기 자녀들은 물론 기독교 국가라는 미국에서조차도 많은 어린이와 학생들이 불신 사회사상의 체제 하에 성장하고 있다. 악과 불의를 날마다 듣는 지금 이 세대에 대해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한 내용대로

“ 그러므로 형제들이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로마서 12:1,2)는 길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씀은 바울 시대의 크리스천들이나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날의 크리스천들 누구든지 실천을 해야 하는 명령이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매우 힘든 상황으로만 돌아가고 있다.(김영희, 2006:14)

과학의 발달로 최첨단의 기술을 자랑하고 있는 21세기에 전 세계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큰 문제(마약, 임신 성폭행, 왕따, 자살 등등)중의 하나가 바로 교육임을 누구나 느끼고 있다. 미디어 발달이 원인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원인중의 하나가 바로 하나님 없는 교육을 했을 때 문이다.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는 백성은 망한다고 했는데, 이 시대의 지구촌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다. 그래도 일주일 중 하루는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도 한다고 하지만 그 하루 중 겨우 한 시간 남짓의 시간으로는 매일 5-6시간씩 5일을 공부하는 25-30시간을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다. 특히 유·아동기의 교육은 교육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의 교육이며 가장 중요한 시기의 교육인 것이다. 그래서 전체 인구의 4분의 1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기독교인들에게 깊이 자리 잡고 있는 ‘병’이 있다면 그것은 이원론적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다. 대체로 말과 행동이 다른 신앙생활, 신앙적인 생각과 실천이 다른 삶 속에서 자라기 쉬운 사고방식이다. 그것은 성경적 가치관을 기반으로 하는 인생과, 세계관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아니 처음부터 제대로 만들어져 있지도 않았다. 기독교적 세계관은 하나님 말씀의 원리에 입각해서 세상과 인생, 문화 전체를 인식하고 이해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성경의 원리에 입각한 기독교적 인격과 사상이 삶의 모든 영역에 스며들어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한국적인 교육환경의 현실에서 이러한 기독교적 세계관을 갖고 살아가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국의 공교육은 근본적으로 크리스천들에게 이원론적인 가치관을 갖도록 되어있다. 누구나 다 경험했겠지만 유·아동기 시절에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라는 창조론을 배우고, 학교에서는 “원숭이로부터 진화한 존재”라고 진화론을 배울 때 유·아동기 자녀들은 이원론적인 교육으로 말미암아 기독교적 세계관을 잃어버리게 된다. 이러한 이중적인 교육에서 성장된 우리 크리스천 유·아동기 자녀들은 이원론적 가치관

을 갖게 되며, 결국 유·아동기 자녀들의 삶은 두 영역으로 구분되어 각각 서로 다른 원칙에 의하여 살게 된다. 그러므로 현재 이러한 이원론적 가치관을 갖도록 하는 한국적 교육에 대한 마땅한 해결책을 찾고자 신앙인들이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다. 최근 들어 기독교 대안학교들이 많은 관심을 나타내며 확산되고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크리스천 홈스쿨링이다. 크리스천 홈스쿨링들은 유·아동기 자녀에게 마땅히 갖추어야 할 그리스도의 성품과 세상에서 가르치는 진화론이 아닌 성경에 기초한 창조론을 바탕으로 가르치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유·아동기를 포함한 모든 자녀교육의 책임을 국가나 학교가 아닌 부모들에게 맡기셨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책임을 잘 완수하기 위해 크리스천 부모들은 대안학교나 홈스쿨링을 선택하기도 한다. 학교가 세워지기 전, 후 학교라는 것을 생각하기도 전에 시작된 가정 중심의 교육은 유사 이래 쭉 있어왔다. 가정은 교육의 기초적인 중심지이며, 부모가 자녀를 훈육하는 유일한 교사였고 지금도 자녀들을 제일 사랑하는 교사이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나라나 세계 여러 나라의 부모들이 자기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르치고 싶어 한다. 특히 크리스천들은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부모 자신 뿐 아니라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며 걱정한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 학문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함으로 인해 신앙 교육이 뒷전으로 밀려나 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 지니라”신명기 6:4-9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말씀이다.

이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홈스쿨링을 하는 가정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 일반 공교육을 떠나서 성경을 중심으로 한 학과공부와 특히 그리스도의 성품을 닦기 위해 일상생활에서의 성품교육에 초점을 두고 있다.

첫째로 현대교육의 목적은 한 개인이 갖고 있는 재능이나 잠재력을 개발하여 유능한 인간으로 만드는 데 있지만, 홈스쿨링은 세상학문이나 기술교육 이전에 자녀들을 거룩하게(Holiness) 양육하는 것에 목적을 갖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이방인의 죄악 된 세속과 구별된, 즉 분리된 삶을 교육시키기 원한다. 둘째로 현대 교육은 부모들이 자녀들의 특성을 개발해 주고 능력을 키우기 위하여 자녀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도록 권장한다. 즉, 미국의 교육 철학자 존 듀이의 영향을 받아 공동체의 유익보다도 개인중심 교육을 강조하여 영적으로 키우기를 원한다. 그런데 홈스쿨링은 자녀들이 성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중심 교육을 시킨다. 즉 가정에서나 세상만사에서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자녀들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고 성경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 성경에서 답을 찾고자 노력한다. 셋째로 현대교육의 교육 환경은 자유스럽고 민주적인 분위기를 강조하며, 이런 환경을 갖춘 전문기관, 즉 학교나 학원에만 의존한다. 그러나 홈스쿨링의 교육 장소는 가정이다. 가정이야말로 그들의 신성한 성전이고, 모든 인간교육의 센터이다. 넷째로 현대는 전문가 시대로 현대교육에서는 “자녀교육을 전문가에게 맡겨라”고 가르친다. 따라서 현대의 부모들은 자녀들이 크기도 전에 어려서부터 전문가를 찾아 나서기 때문에 부모가 전문가를 너무 의존한 나머지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칠 생각을 전혀 하지도 않게 된다. 그러나 홈스쿨링 가정에서의 선생은 부모 자신이다.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부여한 가장 큰 의무도 자녀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치라는 것이다(신 6:4-9). 배움을 받는 학생은 가르치는 사람의 사상을 닦게 되어 있다. 따라서 현대의 자녀들은 전문가에게만 배우기 때문에 부모보다는 가르치는 세속의 선생을 닦는 것이 당연하다.

최근 우리나라의 많은 크리스천들 중에 교육학 교수들과 목사님들조차도 자녀들을 조기유학 또한 외국인 학교로 진학을 시키는 것 등으로 한국 교육에 대한 회의의 돌파구로 삼고 있다. 더 나아가서 해외 원정 출산, 위장 자녀 입양을 통하여 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자녀에 대한 친권을 포기하는 부모도 보게 된다. 자녀와 아내를 외국에 보내 놓는 기러기 아빠는 엘리트층을 중심으로 확장되고 있으며, 하물며 교회 내에서도

기리기 아빠가 늘어나면서 기리기 아빠 모임이 생겨나고 있다고 한다. 한국의 많은 학부모들이 여건만 된다면 한국 교육에서 유아동기 자녀들을 자유롭게 하고 싶어 한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 교육에 대한 현대판 엑서더스라고 할 수 있다. 한국 교육에 대한 이러한 현상을 여러 면에서 파악하여야 한다.

지금 이 시대야말로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매우 갈급한 때이다. 이 모든 것을 매꾸어 줄 수 있는 교회의 내적 부흥을 일으켜야 될 때이다. 우리나라의 새로운 기독교 교육의 부흥을 시킬 수 있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치관이 성립되는 유아기와 아동기에 기독교 홈스쿨링을 함으로써 유아동기 어린이들에게 제대로 기독교 세계관을 정립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II. 유아동기에서의 홈스쿨링 중요성

70년대 미국에서 일어난 홈스쿨링이란 대안 교육체도가 90년대에 와서 큰 붐을 일으키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97년도 매스컴을 통해 알게 된 ‘홈스쿨링’이란 제도의 대안 학교가 세워지고 교육정책의 유연성으로 말미암아 ‘홈스쿨링’이란 말이 이제는 낯선 단어가 아니고, 많은 가정에서 이 홈스쿨링을 실제로 하고 있다. (홍광현, 2000)

홈스쿨링은 부모들이 직접 교사가 되어 집에서 자녀들을 가르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학교계도로 인해 교육과 교육의 역할이 분리되기 이전 즉 산업사회 이전의 일반적 교육 형태였다고 할 수 있다. 사실상 교육은 공교육을 위한 학교라는 사회적 기관이 생기기 훨씬 이전부터 이루어지던 활동이다. 학교가 생기기 전에도 가정 안에서, 동네와 그 지역 안에서, 또래들 사이에서, 일터에서 그리고 종교기관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던 행위였기 때문이다. (권근숙, 2002)

홈스쿨링은 전 세계적으로 급속하게 확장되고 있는 교육 운동 중의 하나로 우리나라에서도 더 이상 생소한 단어가 아닌 어느 정도 익숙한 단어가 되었다. 커리큘럼의 내용과 가정에서 교육하는 방법에 관한 것은 당연히 부모가 결정하는 제도이기도 하다. 대개 홈스쿨링이란 일반적으로 ‘학교’와 같은 제도화된 시스템이 아닌 일반 가정에서 부모가 직접 교육자가 되어 가르치는 것으로 정의한다(Mary, 2001). Preiss(1989)에 따르면, “학부모/가이던스가 자기 자녀의 교육에 대해 기본적인 책임감을 갖는 교육적 대안”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고 홈스쿨링이 가정과 학교와의 유대관계를 완전히 단절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만은 아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부모가 종종 학교에서 제공되는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가정과 학교 사이의 교육적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활동하기도 한다.

홈스쿨링의 의미를 좀 더 자세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홈스쿨러(homeschooler)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관점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람들은 학습할 준비를 갖추고 태어난다. 둘째, 학습은 누구에게나 매일 일어나는 것이다. 삶과 학습은 분리될 수 없는 활동이다. 셋째, 학습은 장소나 시간에 의해서 제한될 수 없다. 넷째, 학습은 너무 아름답고 강렬한 것이기 때문에, 인습적이고 재래적인 학교에서만 다룰 수 있는 것만은 아니다. 다섯째, 아동들은 성인들과 마찬가지로 가족과 지역사회의 사랑과 자원을 필요로 한다. 여섯째, 사람들은 모든 연령층의 다양한 사람들과 상호 작용 함으로써 사회적 경험과 기술을 획득한다. 홈스쿨링은 보다 쉽고 자연스럽게 그러한 상호작용 기회를 제공한다.

이러한 관점에 비추어 볼 때, 홈스쿨링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전통적인 학교교육의 최대 약점인 시간과 장소의 제한성과 형식을 배제하려고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교사만이 유일한 교육자라는 의식도 배제되며, 교육을 학교 이외의 장소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교육 상황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전개될 수 있으며, 교육주체인 부모의 교육관이나 교육환경, 그리고 활용 가능한 자료의 유무 등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띤다.(김진숙, 2004)

보통 홈스쿨러들은 24시간 공부를 한다고 표현을 하는데 그 의미는 일반 학교교육에서 말하는 시간과 장소의 제한적이고 형식적인 한계를 넘어서 언제 어디서나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크리스천 홈스쿨러들은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명령하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 신명기의 말씀을 더 잘 실천할 수 있게 된다. 가정은 인류 최초의 학교이자 가장 기초적인 학습 장소이다. 학교가 세워지기 전, 혹 학교라는 것을 생각하기도 전에 시작된 가정 중심의 교육은 유사이래 쪽 있어왔다. 가정은 교육의 기초적인 중심지이며, 부모가 자녀를 훈육하는 유일한 교사였던 셈이다.(레이 불만 21)

결국, 홈스쿨링은 국가에서 제공하는 형식적인 학교 교육을 받아야만 하는 기존의 확립적 교육 체제에서 벗어나 부모 주도로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자면 홈스쿨링이란 지리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인 이유로 부모가 교육의 주체가 되며 교사 역할을 대신하여 자녀들을 개개인마다 혹은 각 가정에 맞는 커리큘럼을 구성하고 제공하는 맞춤형 교육으로 공교육의 기능을 대신하는 것이다.(이은정, 2002) 크리스천 홈스쿨링은 일반적인 홈스쿨링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자세로 임하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은사와 재능을 주셔서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데 사용하게 하셨다. 부모는 그러한 자녀의 필요를 민감하게 파악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데 은사를 사용하는 법을 깨우치도록 도와준다. 유아동기 어린이들은 혁신적인 행동이나 창의적인 사고를 방해하는 환경을 극복할 수 있을 정도로 성숙하지 않다. 따라서 부모들은 유아동기 어린이들이 자기 은사와 재능을 능숙하게 활용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해야 한다.

자녀가 되듯 깨우치는 학습자라면 부모가 자녀를 누구보다 잘 안다. 그 사실을 신뢰해야 한다. 우리 자녀를 자기 친구나 가족의 자녀들 혹은 또래 아이들과 비교하는 것은 항상 잘못된 것이다. 역사상 늦게 깨우쳤지만 결국에는 승리를 거두고서 이 세상에 대단한 공헌을 한 사람들이 적지 않다. 엘버트 아인슈타인(Albert Einstein), 토마스 에디슨(Thomas Edison), 그리고 레오나르도 다 빈치(Leonardo da Vinci)는 모두 되듯 깨우친 사람들이었다. 전통적인 학교는 이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오히려 각자 좋은 멘토와 짝을 맺게 되자 괄목할 만하게 성장하기 시작했다. 이 사람들은 당대에 아주 비상한 인물로 되었다.

크리스천 부모에게는 자신의 가치관이 어디에서 비롯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한 가지 유일한 선택권이 있다. 바로 성경이 부모의 삶 속에서 권위를 행사해야 한다. 부모가 어디에서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가 하는 문제를 통하여 자녀들에게 무엇이 우리 가치관이고, 무엇이 우리 우선순위인지 보여줘야 한다. 어디에 돈을 사용하고, 누가 우리 영웅인지에 대해 유아동기 자녀들이 스스로 가치관을 분명히 확립하도록 효과적으로 인도하기 전에, 부모는 자신에게 이런 질문들을 던져 보고 되돌아봐야 된다.

우리 유아동기 자녀들의 영웅은 대개 세살 때까지는 엄마와 아빠가 아이들에게 영웅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제발리 유행을 따라 가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유행의 배후에 자리 잡은 가치관을 살펴볼 수 있다. 포켓몬(Pokemon)이건, 파워 레인저(Power Ranger)건, 바비 인형(B Barbie)이건 간에, 아이들(부모도 마찬가지다)은 모두 허구임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영웅을 좇아가기 위해 상당한 시간과 돈을 들인다. 그리스도인에게 영웅이란 하나님을 가리키며 더 많이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도록 돕는 한 가지 목적만 추구해야 되는 것이다.

세속 인본주의는 학교에서는 물론 사회 전반에 깊이 뿌리 박혀 있다. 세속 인본주의는 절대 진리란 존재하지 않으며, 사람은 다른 누군가를 정말로 사랑하기에 앞서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하며, 또 온갖 생활양식을 고유한 것이기 때문에 모두 개별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교묘하게 제안한다. 모든 사람이 지닌 진리가 타당하다는 말을 듣는다. 악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단지 잘못 인도된 사람들이 있을 뿐이다.

공립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과 자녀들이 거기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성인이며, 성숙한 신자로서 우리는 자녀들의 학교에서 올바르게 대응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준비되어 있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리고 하늘 나라의 대표자들로서 우리에게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명을 지키고 자신의 인도하심으로 다른 사람들을 이끌 특별한 책임이 있다. 공립학교의 크리스천 교사 역시 이와 같은 사명을 염두에 두고 있다. 오직 한 가지 유일한 문

제는 우리 자녀들이 아직 성숙한 신자가 아니며, 신앙에 뿌리를 내렸거나 날마다 영적 전투를 치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어떻게 병사는 전투를 준비하는가? 설령 자기 임무가 수색과 구조에 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병사든 자신을 보호하고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세심한 훈련을 받아야 한다. 유·아동기 자녀들이 준비되어 있다고 확신하는가? 일부는 그렇고, 일부는 그렇지 않다. 공립학교나 사립학교에서 보내는 시간만이 다른 어린이를 주님께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허락된 유일한 시간이거나 방법은 아니다.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방과 후 활동이나 운동을 하면서 보낸다. 그와 같은 시간에 부모의 지침을 따라 유·아동기 아이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예전에도 우리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을 들었지만 제대로 이해하지는 못했을지도 모른다. 또는 바로 지금 여기에서 처음 들었을 수도 있다. 그 대답은 아주 중요하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졌으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고, 은혜의 자녀로(아무런 누릴 만한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영생에 도달하게 된 것이다), 약속의 자녀로,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었다. 또 우리는 자기 뜻대로 사용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지니고 있으며, 사랑을 받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진리들을 자녀들에게 반드시 전해야 한다. 너무나 자주 아이들은 학교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확인하기 때문이다. 나는 다른 아이들만큼 예쁘지 않다, 똑똑하지 않다, 나는 아무데도 소속된 데가 없다, 다른 것은 나쁜 것이다, 나는 혼자다, 나는 어떤 것도 쫓아갈 수 없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날 수 없다, 어른들은 신뢰할 수 없고, 어리석고, 나와 다르다, 괜찮은 느낌이 괜찮은 현실보다 더 낫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유·아동기 자녀를 학교에 보내서 배우기를 원하는 것은 결코 이런 것들이 아니다. 그러나 어쨌든 아이들은 자주 그런 소리를 듣는다. 이처럼 경건하지 못한 것들을 차단하는 방패막이로 부모가 나설 수도 있지만, 그런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자원 봉사를 하는 것보다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수 있다. 우리 유·아동기 자녀들이 보고, 듣고, 배우는 것들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걸려져야 한다. 세속 인본주의가 우리 자녀들의 정신을 파괴하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더 강하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거나 믿지 않거나 둘 중의 하나다. 하나님께서 그것에 관하여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

사람들은 또 유·아동기 아이들의 성품 훈련 때문에 홈스쿨을 선택하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강력한 도덕성의 결여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망친다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그 사람들이 옳다. 성경을 배제하고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고작 양심에 호소하는 것뿐이다. 학교에서는 강력한 권고를 할 수는 있지만 진리를 전할 수는 없다. 학교는 진리를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그 진리를 알고 있다. 그 진리를 자녀에게 확실하게 일깨우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메달려야 할지 모른다. 그래서 대부분의 부모들이 홈스쿨링을 선택하고 있다. 이처럼 획일적이고 불개성적인 학교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만이 점점 더 커져가는 가운데, 학부모의 자녀교육에 대한 권리가 국가의 유·아동기 교육에 대한 권리에 앞선다는 생각을 갖는 학부모가 많아질 것이다. 영적 가르침은 홈스쿨링을 시행하는 부모에게 힘과 교육의 효율성을 더해준다. 예외적인 경우도 있겠으나 대부분의 부모는 종교적인 이유로 홈스쿨링을 시행한다.

홈스쿨링은 유·아동기 자녀들의 영적 깊이를 심화시키고, 그들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한다는 특별한 장점이 있다. 부모는 자기 자녀가 영적으로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자녀를 학교에 보낼 경우, 아이가 학교에서 대체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배우지 못하였는지 확인할 도리가 없다. 홈스쿨링을 시행하는 부모는 자녀의 영적 상태에 대해 잘 알 수 있고, 그것에 딱 맞도록 영적인 교훈을 제단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가르치는 부모나 배우는 자녀 모두 서로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경험하게 된다.

유·아동기 아이들은 주로 본보기를 통해 배운다. 주변 사람들의 영적 행동을 따라 하는 것이다. 만일 아이들 주변에 친구들이 있다면, 그들은 친구들을 영적인 본보기로 삼는다. 또 아이들 주변에 부모가 있다면, 그들은 제 부모를 영적인 본보기로 삼는다. 그런데 문제는 신앙이 좋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같이 있을 경우 친구 사이라면 신앙이 좋은 아이가 그렇지 못한 아이를 리더해서 신앙이 좋지 않은 아이를 신앙이 좋

게 이끄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신앙 좋은 아이가 그렇지 못한 아이의 영향을 받아서 생각이나 행동을 따라 하게 된다는 데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어떤 아이가 제 부모와 함께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기쁜 일과 문제를 함께 나누고 있다면, 이런 환경은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매우 독특한 영적 유대관계로 결속될 것이다. 같이 기도하는 가족은 인생의 회로예락을 함께 한다. 홈스쿨링은 자녀의 영적인 깊이를 더하고, 깨달음을 심화시키는 기회를 제공한다.

유·아동기 자녀교육에 관해,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위탁한 가장 중요한 교육영역이 바로 '영적 훈련'이다. 이것이 홈스쿨링의 첫째가는 우선순위이다. 다른 것은 모두 이 영적 훈련 영역 다음이다. 어떻게 어린이가 현명해질 수 있을까? 성경은 "어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잠 9:10)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런데 '어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거저 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부모가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일을 최우선 순위에 둘 때 비로소 가능하다. (레이 불만 125)

인성, 인간미, 인격이라고도 볼 수 있는 성품은 동물들과 비교해 볼 때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독특한 성격이다. 잠언이 지혜서인 것은 크리스천들은 거의 다 알고 있다. 그런데 지혜는 좋아하고 갖고 싶어 하지만 정작 어른들이 읽고 아는 선에서 그치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에는 대부분이 실패를 하고 있다.

1994년 5월 19일 아버지를 살해하고 불 지른 박한상군의 아버지가 모 교회의 피택 장로였다고 한다.(중앙일보, 박한상군 부모 살해 및 방화, 1994년 5월 19일) 그리고 1995년 3월 14일 자신의 아버지인 금복 학원 이사장 김형진씨를 살해한 미 유학 출신의 모 대학 교수 김 성복씨도 기독교인이었다.(중앙일보, 제 2 박한상, 교수인 아들이 범행, 1995년, 3월 20일) 이 두 사건에서 놀랄만한 사실은 두 가정이 다 기독교라는 점이다. 만약 불교였다면 장피하지는 않았었을 것이다. 그들이 성경 말씀을 몰랐을까? 아니면 못 들었을까? 둘 다 아니다. 먼저는 유·아동기 때부터 부모로부터 성경 말씀대로 배우지 못 했고, 자라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 꾸지람을 듣거나 매 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니면 성경 말씀이나 꾸지람을 들을 때 한쪽귀로만 듣고 한쪽귀로 흘려보내며 귀담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도 주위의 친구들이나 환경이 좋았다면 잘 나타나지 않았을지도 모를 일이다. 그러나 주위의 환경이나 친구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지혜롭지 못한 행동을 하게 된 것이다. (중앙일보, 박한상군 부모 살해 및 방화, 1994년 5월 19일)

지혜는 사람의 성품을 통해 나타나게 되는데, 유·아동기 자녀들에게 지혜를 가르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삶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어야 한다. 그리고 유·아동기 자녀들에게서 미련하고 나쁜 습성들이 발견될 때마다 즉시 훈계와 체적으로 다스려야 한다. 그런데 자녀를 학교에 보내게 되면 유·아동기 자녀가 잘 하고 있는지 잘못 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다.

그렇지만 홈스쿨링을 하게 되면 부모들은 유·아동기 자녀들에게 예수님의 성품을 심어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서 좋다. 아침부터 밤까지 하루 종일 같이 지내면서 자녀들의 생각이나 형제들과 어른들에게 대하는 말투나 행동을 지켜보고 관찰하면서 잘못된 점을 그때마다 즉시 지적해줄 수 있다. 이런 기회가 주어진다 하는 것이 자녀의 성품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모에게는 얼마나 감사한 기회인지 모른다. 하숙생의 주인과 같은 역할로 전락된 요즘의 부모들에게는 자녀와 같이 지내는 시간을 갖기 매우 힘들다. 자녀가 어렸을 때에는 엄마가 힘이 들어서 빨리 기저귀만 떼면 어린이 집이나 놀이방 같은 곳에 몇 시간이라도 맡기고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며 해방감을 만끽하고 싶어 한다. 그러다가 자녀가 점점 자라면서 유치원이나 학원에 다니고 초등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방과 후의 여러 가지 활동(피아노, 웅변, 영어, 태권도, 등)을 시키느라 바쁘다.

학교에 다니게 되면 학교의 시스템에 따라서 생활을 해야 하므로 부모가 그 사이에 끼어들어 성품교육을 시킬 수가 어렵다. 모든 초점이 대학입시, 수능, 내신 성적, 점수에 모아져 있기 때문에 교육을 받는 자녀들도 마음에 여유가 없어 신경도 못 쓴다. 따라서 요즘에 대한 학교라는 형태로 공교육에서 다루기 힘들거나 어려운 인성 교육이나 전인 교육에 신경을 많이 쓰는 학교들이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내오던 기독교 학교와는 다르게 더 신앙적으로 신경을 쓰는 기독교 대안 학교들이 생겨나고 있다. 이런 학교들은 일반 학교에서 신경조차 쓰지 않는 부분 즉, 인격적인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쓸 것이다. 참으로 좋은 대안이 될 것이라고 생

각한다. 그렇지만 이것도 단체 생활이고 선생님들에게 주어진 일들이 많기 때문에 자녀들의 개별적인 성품 훈련에 부모와 같은 사랑과 책임감을 갖는 선생님을 만나기는 한계가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하나님께서 유·아동기 자녀들을 부모에게 맡기시며 '말씀하시는 것을 삼가 듣고 행하라'(신명기 6:3)고 하시면서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학교나 정부가 아닌 부모의) 자녀에게(다른 자녀가 아니라)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 할 것이며"(신명기 6:6,7) 라고 명령 하셨다. 이 말씀대로 홈스쿨링을 시행하는 부모는 유·아동기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형성해줄 기회를 순간마다 포착할 수 있다. 자녀에게 인내, 신뢰, 용서, 기쁨 등 어떤 영역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아차리면, 부모는 즉시 자녀에게 부족한 부분을 강조하여, 그 부족함을 채울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학교에서도 이 전보다 더 인성 교육을 강조하고 있지만 학교 내의 폭력이나 왕따 같은 문제들이 점점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가정에서 교육받는 아이들의 인성발달은 일반적으로 매우 순탄하다. 홈스쿨링을 시행하는 부모는 유·아동기 자녀가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발달시키고 형성하게끔, 매일매일 지속적으로 도울 수 있다.(레이 불만 124)

어떻게 학습하는가는 무엇을 학습하는가와 마찬가지로 아주 중요하다. 우리 유·아동기 자녀가 청각적인지, 시각적인지 혹은 활동적인 학습자인지, 아니면 몇 가지가 결합된 학습자인지 여부가 얼마나 잘 학습하는지에 관하여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 자녀가 가장 잘 학습하는지를 파악하는 일이며, 이를 통해서 우리가 가르치는 방식과 자녀가 배우는 방식을 일치시킬 수 있을 것이다. 다양한 방식으로 자녀를 가르치는 게 더욱 편리한 접근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식으로 유·아동기 자녀는 가장 잘 배울 수 있는 방법을 익힐 수 있지만, 동시에 자신이 좋아하는 방식만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도 어떤 과목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

우리 유·아동기 자녀들이 정말 어디에 관심을 보이는지 확인하고 나서 자녀들의 학습 경험을 그러한 관심과 결합하게 되면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유·아동기의 자녀들은 해마다 관심이 바뀔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심대 시절에 줄곧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이다가 결국에는 평생 직업으로 삼을 수도 있다. 이처럼 집중적으로 유·아동기시기에 시간을 투자하여 기독교적 세계관을 갖고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홈스쿨링 환경에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된다.

홈스쿨링을 한 가정의 유·아동기 자녀들은 어린 아이부터 노년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 집단과 잘 어울리며, 자아 개념에 대한 기준이 높고, 새로운 상황에 비교적 용이하게 적응하고,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훨씬 더 많이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이러한 특성들은 한결같이 긍정적인 사회성을 반영한다. 메리 그리피스(Mary Griffith)의 「홈스쿨링 핸드북」(Homeschooling Handbook)에 인용된 어떤 어머니는 사회성을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 “묘목을 가져다가 온실에 두고서 서서히 외부에 적응시키면, 무작정 바깥의 험난한 ‘실제’ 세계에서 시작한 나무보다, 그리고 지나치게 보호를 받아서 외부 세계의 충격을 넉넉히 받아들일 수 없는 나무보다 훨씬 더 잘 성장할 것이다. 우리는 외부 활동과 바깥 친구들과 사이에서 적절하게 균형을 잡고 있으며, 우리 관심을 끄는 여러 사람들과 함께 지낼 뿐만 아니라 그러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부모가 집에서 유·아동기 자녀를 가르치게 되면 자녀의 개별적인 학습 필요에 적절히 부응할 수 있고, 부모의 도덕, 가치, 신앙을 올바르게 전달할 수 있으며, 자녀의 재능이 뛰어난 경우 연명을 초월한 학습을 가능하게 한다. 그리고 해마다 동일한 교사인 부모가 계속 가르치게 됨으로 연속성을 가지고 가르칠 수 있으며, 오래 혹은 일정하지 않은 시간대에 일하는 아버지들에게 자녀와 함께 지낼 기회를 제공해 준다. 또, 홈스쿨링은 경제적이고, 가족끼리 서로 가까워질 수 있도록 기회를 또한 제공해 주며, 독립적인 학습을 강화하고, 어린이는 학력 검사에서 적어도 또래만큼 혹은 또래보다 훨씬 높은 점수를 기록하게 한다. 자녀들은 일찍부터 훨씬 더 효과적으로 가정에서 협력해서 일하는 법을 배운다. 유·아동기 어린이에게 여러 주제를 심층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유·아동기 아이들을 세심하게 돌볼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배우는 것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경과 교육을 통합할 수 있기 때문에, 성품 함양과 심성 훈련에 더 많이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유·아동기 시기에 아이들이 부모와 더 많은 시간을 지내기 때문에 삶의 방식을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을 일대 일로 가르치는 것은 최상의 교육 방법이기 때문에, 아주 즐겁기 때문에, 아이들의 교육은 가족의 생활 방식이 되기 때문에, 큰 비용이 들지 않고 교육할 수 있다.

부모는 어떤 교사나 과외교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로서 자녀의 학습 경험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 가정에서는 별다른 시간제한이 없다. 유·아동기 자녀가 곱셈을 익히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면 가정에서는 가능할 때까지 계속할 수 있다. 완전히 익힐 때까지는 굳이 진도를 나갈 필요가 없다. 격자를 극복하고 모르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목표이므로 그렇게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상관하지 않는다. 부모는 다른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자녀를 사랑한다. 교사도 아이들에게 애정을 가질 수 있지만, 부모만큼 자녀를 사랑할 수는 없다. 부모는 어떤 교사보다 자녀를 더 잘 안다. 교사들은 아이들을 너무 많이 담당하고 있어서 하루 가운데 단 몇 시간 동안 아이들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다. 부모는 자기 자녀가 배우는 필요한 만큼의 시간을 기꺼이 낼 수 있다. 많은 어린이들이 학교 교실에서는 여러 가지 사유로 낙오한다. 낙오자들이 따라잡을 수 있도록 기다릴 만큼 충분한 시간은 없다. 교사들은 개의치 않고 대다수를 위하여 진도를 나가야만 한다. 부모는 자녀 교육에 100퍼센트 헌신을 한다.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헌신을 하기는 하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100퍼센트를 헌신하지 못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안 한다. 물론 부모의 성향에 따라서 차이는 나지만 일반적으로 홈스쿨을 선택한 부모는 그만큼 자녀들에 대한 헌신을 기본적으로 갖고 시작한다. 부모는 계속해서 기꺼이 스스로 배움으로써 유·아동기 자녀를 더 잘 가르칠 수 있다. 설령 교사들에게도 더 잘 가르치는 방법을 익힐 수 있는 워크숍이 끊임없이 제공되지만, 교사들은 대부분 거기에 참석할 시간이나 의도가 없다.(Vicki Caruana) 이외에도 유·아동기 시기의 자녀들에게는 영양식으로 무엇보다 중요한데 홈스쿨을 하는 유·아동기 자녀들에게 사랑이 담긴 식사를 제공함으로써 학교에서 먹는 급식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양질의 식사를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체력적으로도 유·아동기 자녀의 필요에 따라 원하는 운동을 마음껏 할 수 있다.

자녀들은 하나님의 유산(선물)이다. 자녀들은 그분의 소유이며 부모에게 잠시 위임되었을 뿐이다. 자녀들이 함께 있는 동안에, 부모는 자녀들을 위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고 이 세상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경건한 남녀가 되도록 준비시켜야 한다. 유·아동기시기부터 부모는 자녀들이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위해 준비하고 보호하며, 또 스스로를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 이것은 특권이다. 유·아동기 자녀들은 주님의 양육 방식과 교훈에 따라 양육 되어져야 하고, 강인한 정신을 갖도록 훈련되어져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인격적인 확신을 갖고 살아가야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식이 선하다고 믿지만, 자녀를 가르칠 때 오로지 지식만을 의지하면 교만을 낳게 된다. 자녀들이 배우는 정보는 신앙, 그리고 덕성이나 성품 발달이라는 토대에 근거해야 한다(벧후 1:5-8). 특히 유·아동기 자녀들은 부모의 모범을 통해, 오감을 통해 받아들이는(발견을 통해 경험되는) 것을 통해, 읽는 것을 통해, 질문을 던지는(또 대답하는) 것을 통해, 그리고 영적 통찰력을 통해 배운다.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신 6:6-7). 수많은 그리스도인 부모는 이 특정한 구절을 홈스쿨링에 대한 부르심으로 간주한다. 이것은 아주 강력한 부르심이며, 수많은 부모와 자녀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놓았다. 이 구절은 부모로 하여금 자녀를 교육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한다. 과연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그리고 언제 가르쳐야 하는지 부모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III. 유·아동기시절의 기독교적 세계관 정립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에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교훈, 그리고 하나님의 규례를 지칭한다. 부모는 유·아동기 자녀에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러한 말씀들을 가르치라는 기대를 받고 있다. 이것은 우리 유·아동기 자녀에게 어떤 유형(공립, 사립, 혹은 가정)의 학교 체계를 선택 하든지 관계없이 기대되는 일이다. 많은 홈스쿨 부모는 이 문제에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자녀를 가정에서 학교로 데려가는 것이라고 믿고, 자녀를 공립학교나 사립학교에 보낼 생각을 아예 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곳에서 아이들에게 일어날 일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이 세상을 이겼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자녀와 함께 지내기로 결정한 게 지나친 두려움 때문이건, 아니면 제일 먼저 감당해야 할 일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는 것이라는 지나친 확신 때문이건 간에, 우리는 여전히 유·아동기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남겨놓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모든 과목들을 세워가기 위한 기초다. 글자 쓰기에서부터 과학 과목에 이르기까지 모든 학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걸려져야 한다. 모든 과목, 인간이 만든 모든 원리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언약으로 평가해야 한다. 그러므로 부모가 이 구절을 보면서 “이 말씀”이라는 부분을 읽을 때, 먼저 그 말씀들이 무엇인지 명확히 하고 다음으로 그 말씀들을 자녀에게 제대로 전달하는 법 또한 알고 있어야 한다.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이 구절이 가장 중요한 대목이다. 부모가 얼마나 부지런히 가르치고 있는가? 『포도나무 성경 사전』(Vine's Bible Dictionary)에 따르면, 부지런히 가르칠 것과 더불어 진지하고 조심스럽게 가르쳐야 한다고 말한다. 그것은 무작정 기다려야 하는 일이 아니다. 세월은 짧다. 자녀들은 하늘 아버지로부터 잠시 빌려왔을 뿐이다. 부모는 더할 수 없이 진지하게 자녀들에게 주의 길을 가르쳐야 한다. 그러나 세심하게 돌보는 마음으로 유·아동기 아이들을 가르쳐야 한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은 조심스럽게 계획되고 실행되는 신사숙고해야 할 행위다. 그러므로 별 생각 없이 혹은 목적 없이 실행해서는 안 된다. 부지런함의 반대는 무기력과 게으름이다. 잠언에는 후자의 두 가지 특정한 버릇을 피해야 할 이유들로 가득하다. 따라서 신명기 6장 6-7절에 순종하고 싶다면, 부모는 유·아동기 자녀들에게 진지하고 신중하게, 그리고 “부지런히”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야만 한다. 그리고 이런 가르침은 항상 해야 할 일이다.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하나님과 그분의 명령에 관해서 자녀들에게 언제, 어디서 가르쳐야 하는지 얼마나 포괄적으로 이 구절에서 설명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때때로 유·아동기 자녀들이 전통적인 학교에 간다면, 이 구절에서 설명한 것과 같은 기회들은 거의 오지 않거나 거리가 먼 내용이다. 아침에는 잠을 깨워 밥을 먹인 다음 학교에 보내느라 너무 분주한 나머지 “일어날 때” 하나님께 경건의 시간을 드리겠다는 생각은 전혀 할 수 없을 지경이다. 그저 준비물과 체육복을 빼먹지 않고 챙겨주는 일을 기억하고 싶을 따름이다. 신명기의 구절은 일종의 명령이며, 이 말씀을 제대로 따르기 위해서는 잠자리에서 잠깐 드리는 기도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 거기에는 상당한 시간을 개인적으로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 시간의 질과 양에 관한 중대한 논쟁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활발하다. 자녀들과 어느 정도의 시간을 함께 보내야 하는지에 관해서 죄책감을 느끼는 맞벌이 부부는 적은 시간이라도 유·아동기 자녀와 함께 질적으로 멋진 시간을 보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모든 게 나아질 것이라고 확신한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 구절에서 시간의 질과 양을 모두 요구한다. 이 대목에서 대다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자녀를 가정에서 양육하는 것이다. 부모는 자녀들과 적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 가령 정성 어린 빵을 굽는 일과 마찬가지로. 만약 부풀어 오를 기회도 주지 않고 구우려고 불을 지피면, 납작한 빵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삶을 자녀에게 준비시키려고 한다면, 지금까지 해온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부모에게는 얼마든지 시간을 균형 있게 잘 분배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자녀들이 축구를 하러 가는 길이나 잠자리로 들기 전에 자녀들에게 실제적으로 접근하여 섬기거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의미를 가르칠

수 있는 순간을 충분히 포착해낼 수 있다. 그러나 부모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일이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다.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율법, 규례, 원리를 부지런히 가르쳐서 선한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자녀는 부지런한 학생이 되어야 한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 명하신바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나와 네 아들과 네 손자로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네 날을 장구케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고 네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젃과 풀이 흐르는 땅에서 너의 수효가 심히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위를 사랑하라”(신 6:1-5)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그것들을 가르치며”에서 “그것들”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가리킨다. 이 명령에서는 학교 공부나 이차적이라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물론 학교 공부라는 말이 언급조차 되지 않았지만 말이다. 그러나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유·아동기 자녀를 가정에서 양육하는 것이라고 믿는다면, 다음으로는 세상 기준을 따라 학교 공부에도 역시 그만큼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신명기 6장 6-7절 이후의 구절들(8-25절)은 이 말씀을 순종하는 일이 왜 그토록 중요한지 설명한다.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8-9절) 사람들은 자기 앞에 있는 하나님의 율법을 암기하고 지키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의도적인 행위들을 활용하였다. 성경을 암기하는 것은 오늘날에도 역시 중요하다. 하나님의 법에 순종해야 한다면, 먼저 그것을 알아야 한다. 자녀가 사립 기독교 학교에 다닌다면 아마 매주 성경 구절을 공부하게 될 것이다. 성경을 암송하는 청소년 모임에 참여하고 있다면, 분명히 성경 구절을 계속 배우게 된다. 그렇다고 자신이 배운 것을 일상적인 삶의 상황에 적용할 수 있을까? 앓을 때에든지, 걸어 다닐 때에든지, 누울 때에든지, 일어설 때에든지, 자신이 이해한 것을 부모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 가정을 특징짓는 모습이 아니라면, 어떤 형태로든 변화를 시도해야 한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다. 부모의 의지가 약한 게 진짜 문제다. 그러나 부모가 성령을 따라 걸어간다면,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상황과 환경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며, 그렇게 하지 않는 상황과 환경도 분별하게 될 것이다. 정말로 던져야 할 질문은 ‘과연 순종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과연 순종하려는 의지가 있는가?’라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걸어갈 때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다. 홈스쿨링을 하든지 안 하든지 그것보다도 부모의 자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매일매일 유·아동기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과 훈계로 가르치고자 하는가가 더 중요하다.

표면상 이러한 선택은 정말로 자기 의지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우리 선택을 인도하신다.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부모는 모두 유·아동기 자녀를 학교에 보내는 것은 물론 여러 가지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 부모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누가 이 선택을 하도록 이끌고 있는가? 홈스쿨링을 선택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할 수도 있다.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가족을 위해서 그러한 선택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임을 확신해야 한다. 특별히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유심히 관찰하는 동시에 조심스럽게 귀를 기울이고, 이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완백하게 확신하는 선택을 하라.

IV. 세속적 교육과 기독교적 세계관

세속적 교육은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를 상실한 교육이다. 세속적 교육에서도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거기에 말하는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형상과 그 원형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다. 세속적 교육에는 어

리 가지 형태가 있으나 사람이 형상이라는 사실과 하나님만이 궁극자라는 사실을 부인한다는 점에서는 모두 하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왕좌에서 몰아내면 그 왕좌는 곧바로 세속적인 가치관에 의하여 점령된다. 교과목을 하나님과 성경말씀에 관계없이 가르치는 것보다 자녀 교육에 더 해로운 것은 없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하나님만이 모든 것에 의미를 부여하며 하나님을 떠나서는 모든 것이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우리 자녀들은 학교 교과목에 대한 진화론적 해석으로 말미암아 진화론적 교육철학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것은 참으로 위험한 일이다. 모든 사람들이 증명도 거치지 않은 이 진화론을 의심 없이 믿으려는 이 현실은 안타깝기 그지없다. 진화론이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크리스천 부모들이 이 진화론의 허구성을 파악하고 그것을 논박하는 것은 매우 시급한 일이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항상 성경과 피조물이 하나님의 계시임을 교육하여야 한다. 부모들은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규 홈스쿨링 교재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교육할 수 있다. 우리는 홈스쿨링의 교과목에서 무엇을 보는가는 무엇보다도 관점(Prospective)의 문제이다. 사람과 학교 교과서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여 있지 않으면 사람과 하나님의 생각이나 속성을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학생과 교과서의 참 의미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보초하는데 있다. 그러므로 크리스천 홈스쿨링 교육은 세속적 지식으로 교육되고 있는 공교육의 한계를 벗어나서, 모든 학문이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음을 교육하는 것이다.

홈스쿨링을 통해서 사람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에 의하여 창조 되었다라고 교과과정 및 교재에서 교육할 수 있지만, 공교육에서는 이러한 교육을 할 수가 없다. 공교육으로만 교육하게 되면 우리 자녀들이 진화론을 배우게 되고, 결국 하나님 대신 사람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하게 된다. 세속 교육에서처럼 하나님을 제거하면 사람의 삶은 이중적인 가치관을 갖게 되며 서로 대립하게 된다. 교육체제도 하나님 중심 교육체제인 홈스쿨링과 세속적인 교육체제인 공교육과는 서로 대립하게 될 것이며, 그 교육 체제는 또한 서로 대립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을 길러 내게 될 것이다. 우리 유아동기 자녀에게 가장 필요한 교육 체제는 하나님을 원래의 위치, 곧 모든 삶의 구심점으로 확립시키는 교육 체제를 통한 기독교적 세계관을 정립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홈스쿨링은 우리 유아동기 자녀들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의로운 백성으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군병으로 성장시키는 데 현재 다른 어떤 교육 시스템보다 훨씬 더 큰 역할을 하리라 확신한다. 홈스쿨링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확립할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간의 관계를 확립시킬 수 있다.

V. 결론

기독교 교육의 목표는 영적인 회복이다. 기독교 교육의 진정한 목표는 '구속적'이다. 기독교 교육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이를 목표로 삼아야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과 행동이라는 결과를 낳게 된다. 홈스쿨링을 시행하는 크리스천 부모는 모든 지식을 기독교 세계관과 슬기롭게 통합한다. 그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유래했으며,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며, 하나님에 의해 가치평가 된다는 것을 깨달아, 생활의 모든 주제나 학과목을 그리스도를 위해 봉사하는 수단으로 여긴다. 이렇게 교육받은 유아동기 아이 또한 증인의 신분으로 사회 속으로 들어가, 사회를 '하나님 나라'라는 이상으로 끌여가기 위해 효과적으로 기여하게 된다.

기독교적인 홈스쿨링을 시작하는 최선의 방법은 기독교 교육의 목적을 올바르게 깨닫는 데서 비롯되며, 유아동기부터 우리자녀를 하나님 앞으로 데려가, 용서받게 하고, 새로워지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받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최근에 들어 기독교 대안 학교나 홈스쿨링과 같이 교육의 다른 방법을 찾아보고자 노력하는 부모들이 많아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하여 그 대안 점을 소개하고자 노력했다. 유아동기 어린이 교육에 관심을 갖고 기독교 교육이 시작이 되어왔는지를 알아보고 최근에 나타나는 기독교 교육의 문제점들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홈스쿨링이 쉽지 않은 않고 회색해야 할 부분도 많지만 이것을 통하여 얻어지는 장점들은 너무나도 많다. 먼저는 유아동기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신

앙 교육을 할 수 있고, 배운 말씀들이 실 생활에서 잘 적용되고 있는지 관찰할 수 있고, 자녀들의 안 좋은 성품이나 습관들이 보일 때마다 즉시 그 자리에서 지적해 주고 고쳐줄 수 있으며, 아이의 학습 능력을 파악해서 아이의 능력에 맞추어서 잘하면 계속 나아가고 잘 못하는 부분은 이해하고 알 때까지 반복해서 공부할 수 있고, 친구들과 비교하는 데서 오는 압박감을 줄일 수 있다. 이 외에도 가정이 회복되고, 자녀의 성격이 차분해 지고, 자기가 관심 있는 부분들을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등 영성, 인성, 도덕성, 사회성, 체력, 학습 능력, 등 많은 부분에서 유익을 누릴 수 있다. 유아동기 시기의 홈스쿨링은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확립하는데 매우 중요한 교육과정으로 제안하고 한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고 문헌

- Ballmann, Ray. 'The How & Why of Home Schooling' 배운준 역. *홈스쿨링*, 서울: 규장문화사, 2003.
- Eavey, C. B. 'History of Christian Education' 김근수, 신창기 역. *기독교교육사*, 서울: 한국기독교 교육연구원, 1995.
- Ezzo, Gary & Ann Marie. *Growing Kids God's Way* 탁영철 역.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녀를 양육하라*, 서울: 파이디온교회, 1993.
- Claggett, Doreen. *Christ-Centered Teacher's Manual for Early Childhood* 김용자 역. *홈스쿨 지도자 가이드*, 경기도: 도서출판 NCD, 2003.
- Mayberry, Maralee. Knowles, J. Gary. Ray, Brian. Marlow, Stacey. *Home Schooling: Parents as Educators* 이해영 역. *미국의 홈 스쿨링*, 서울: 박영출판사, 2002.
- Cloud, Henry. Townsend, John. *Boundaries with Kids* 이기섭 역. *No!라고 말할 줄 아는 자녀양육*, 서울: 좋은씨앗, 2002.
- Illich, I. *The Deschooling Society/ After Deschooling, What?* 김광한 역. *탈학교론쟁*, 서울: 마당, 1970.
- Wyckoff, D. Campbell. *Theory and Design of Christian Education Curriculum* 김국환 역. *기독교 교육과정의 이론과 설계*, 서울: 성광문화사, 1992.
- Fuller, Cheri. *Motivating Your Kids From Crayons to Career* 김영미, 강란주 역. 스스로 배우게 가르치라, 서울: 예영 커뮤니케이션, 2000.
- Greene, Jr. E. Albert. *Reclaiming the Future of Christian Education*. 현은자, 정희영, 황보영란 역. *알버트 그린 박사의 기독교 세계관으로 가르치기*, 서울: 도서출판 CUP, 2000.
- Brummelen, Van Harro. *Walking with GOD in the Classroom*. 기학연 교육연구모임역. *교실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십니까?*, 서울: 한국 기독교학생회 출판부(IVP), 1996.
- Voeller, Bradley. *Raising your children with a wisdom: How to equip them with seven vital qualities*. NCD 편집부 역.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비전의 아이로 키우기*, 경기도: 도서출판 NCD, 2003.
- 정유성. *대안교육이란 무엇인가*, 서울: 내일을 여는 책, 1997.
- 방현덕. *기독교 가정교육론*, 서울: 바울서신사, 1985.
- 강영우. *교육을 통한 성공의 비결*, 서울: 생명의말씀사, 1999.
- 현용수. *IQ는 아버지 EQ는 어머니 몫이다*, 서울: 국민일보사, 1997.
- Bliss, Barbara A. *Home Education : a Look at Current Practices*. Michigan : Project, Michigan State University (ED304 233), 1989.
- Preiss, Jane S. *Home Schooling : What's That?*, Little Rock : Paper presented at Mid-South Educational Research Association Meeting, 1989.
- 국회 통일시대 평등사회 정책 연구회. *홈스쿨 제도 도입을 위한 전문가 세미나*, 서울 : 국회 통일시대 평등사회정책연구, 2003.
- 권근숙. *우리나라 홈스쿨링의 현황과 실천사례 연구*, 경상도 : 경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윤은숙. *한국의 홈스쿨링에 관한 부모들이 인식하는 문제점에 대한 일 연구*; 서울 : 삼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이은정. *한국 선교사 자녀 대안 교육 가운데 홈스쿨링의 필요성*; 현동 신학대학원대학교 목회학 석사학위논문, 2002.

진대원. *홈스쿨링의 현황과 문제점 보완 방안*; 전라도 :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정일웅. “코메니우스와 교육개혁(기독교 대안학교)”. 서울: 코메니우스 학술 심포지엄 논문집, 프리칭 아카데미 (2004).

오준희. “21세기 한국 기독교의 교육적 과제: 기독교 학교와 홈스쿨링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 기독교 교육 정보회 (2005).

김영희. “한국에서의 크리스천 홈스쿨링 적용 가능성 연구”. 미드웨스트 대학교 박사논문 (2006).

반성숙. *한국 선교사 자녀교육을 위한 홈스쿨링에 관한 연구*; 고신 대학교 선교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2002.

김남영. *홈스쿨의 이유와 교육의 기쁨*; 서울: 제4회 기독교학교와 홈스쿨을 위한 기독교대안교육협의회 정기 세미나, 2004.

홍광현. “한국 교육철학의 현실과 대안-교육이념중심으로”. 서울: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0).

Wheeler, Rechar. *Warning! Public schools aren't for Christians!: A Biblical Perspective*. bulverde, Texas: Mantle Ministries Press.

Ray, D. Brian. *Home Schooling on the Threshold: A Survey of Research at the Dawn of the New Millennium*. Salem, Oregon: NHERI Publications, 1999.

Nord, A. Warren. *Religion and American education: Rethinking a national dilemma*. Chapel Hill, NC: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1995.

Moor, Raymond & Dorothy. *Home Grown Kids: A Practical Handbook for Teaching Your Children at home*. Waco, TX: Word Books Publisher, 1982.

Fugate, J. Richard. *What the Bible Says About...Child Training*. Garland, Texas: Aletheia Publishers, Inc., 1980.

Pride, Mary. *The Next Book of Home Learning: Everything Enriching for you & your children*. Westchester, Illinois: Crossway books, 1988.

Moor, Raymond & Dorothy. *The Successful Homeschool Family Handbook*. Nashville: Thomas Nelson Publishers, 1994.

Pride, Mary. *The Big Book of Home Learning: Preschool & Elementary*. Wheaton, Illinois: Crossway Books, Volume 2, 1991.

Caruana, Vicki. *The ABCs of Homeschooling*. Wheaton, Illinois: Crossway Books, 2001.

Ray, D. Brian. *Worldwide Guide to Homeschooling*. Nashville, Tennessee: Broadman & Holman Publishers, 2003.

Gochnauer, Cheryl. *Stay-at-Home Handbook*. Downers Grove, Illinois: Inter Varsity Press, 2002.

Farris, P. Michael. *The Homeschooling Father: How You Can Play a Decisive Role in Your Child's Success*. Nashville, Tennessee: Broadman & Holman Publishers, 2001.

Klicka, Christopher. *The Heart of Home Schooling: Teaching & Living What Really Matters*. Nashville, Tennessee: Broadman & Holman Publishers, 2002.

Gochnauer, Cheryl. *So You Want to Be a Stay-at-Home Mom*. Downers Grove, Illinois: Inter Varsity Press, 1999.

Johnson, Jan. *Growing Compassionate Kids: Helping Kids See Beyond Their Backyard*. Nashville, Tennessee: Upper Room Books, 2001.

Klicka, Christopher. *Home Schooling: The Right Choice!*. Nashville, Tennessee: Broadman & Holman Publishers, 2002.

Farris, Vickie and Metzgar, Jayme Farris. *The Home Schooling Mother: A Mom Just Like You*. Nashville, Tennessee: Broadman & Holman Publishers, 2002.

Callihan, David and Laurie. *The Guidance Manual for the Christian Home School: A Parent's Guide for Preparing Home School Students for College or Career*. Franklin Lakes, NJ: Career Press, 2000.

Pearl, Michael & Debi. *To Train Up A Child*. Pleasantville, TN: Michael Pearl, 1999.

Taylor, J. Marvin. *An Introduction to Christian Education*. Nashville, Tennessee: Abingdon Press, 1980.

Smalley, Gary. *The Key To Your Child's Heart*. Dallas, TX: Word Publishing, 1992.

Abstract

Homeschooling of Early and Elementary Childhood in the Christian World View

Kim, Young-Hee (Midwest University)

Kim, Nam-Young (Kwangwoon University)

Kim, Eun-Jee (Homeschool Center)

This paper pursues to suggest the homeschooling of Early and Elementary Childhood in the christian world view. Christian educational issues are passionately debated in the world today and education has been a crucial concern of parents and society since the genesis of culture. The period of Early and Elementary Childhood is so important to build up the development of Christian world view. There are two basic education categories of world and life views: those that are God-centered education and those that are man-centered education. As home schooling, the development of your children in the period of Early and Elementary Childhood. is fundamentally responsible for future christian adult. The fundamentally responsible for the development of your children in the period of Early and Elementary Childhood are suggested. And the effect and response of christian home school education are explained in this paper,